

불자 세상보기

‘상업광고 중단’ 이효리에게 배우다



성태용 건국대 철학과 교수

“장하다, 이효리!” 이효리 씨가 상업 광고에 출연하지 않기로 했다는 기사를 읽는 순간 내 머리에 떠오른 말이다. 인기 정상에 있는 스타가, 주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에 출연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리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그 결단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스타의 행보가 대중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를 잘 알기에, 그 결정이 끼칠 긍정적 영향을 예상하곤 정말 다시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멋있다, 이효리!” 이효리 씨와 관계된 인터뷰와 기사를 꼼꼼히 훑어 보면 서 티진 두 번째 찬탄이다. 결코 스타의 일시적인 기분에 별인 해프닝이 아니었다. 동물보호에서부터 환경문제, 더 나아가 정치에 대한 자각의 과정이 역력히 보였다. 주체적인 결단의 과정과 그것을 통해 성숙해 가는 인간 이효리

의 모습이 정말 너무도 멋있었다. 한갓 상품으로 대접받기를 거부하고 당당한 주체로 서려는 노력에 가슴이 뭉클하였다. 스타이기에 더더욱 힘든 결단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 중압감을 이기면서 자신을 진정한 자신으로 세우나가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모습에 어찌 박수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힘내라, 이효리!” 세 번째는 찬탄이 아니라 격려의 말이 떠올랐다. 쉽게 하는 말로 “사서 고생을 한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어려운 결단, 그것은 단지 결단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자신의 결단이 옳았음을 증명해가는 삶의 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는 위치기에 더더욱 힘들 수 있고, 지냈던 많은 것들을 놓아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평소 텔레비전을 거의 보지 않는 필자가 보내는 이 찬탄은 정말 진심어린 찬탄일 수밖에 없다. 솔직히 말해 이효리 씨를 잘 모르는 내가 골수 팬이 될 생각이 들 정도라면 얼마나 많은 새로운 응원자들

이 생겼겠는가. 물론 이효리씨의 주체적 각성 과정을 본다면 팬들을 의식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공자께서도 “먼 곳에서 찾아오는 벗이 있다면 또한 얼마나 즐거우는가?”라고 말씀하지 않았는가? “돌아보자, 나 자신!” 마지막은 역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순응하는 ‘나 자신’ 반성 ‘어떤 삶 살까’ 사색해야

나로 돌아오는가? 이효리 씨를 보면서 결국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그만큼 이효리 씨의 선언에는 현대 문명과 자본주의 시장경제 속에 반성없이 살고 있는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계기가 있다. 끝없이 욕망을 부추겨 상품을 팔아대야만 유지되는 자본주의 경제는 인간을 지구의 암세포로 만들고 만다. 수 십년 입을 웃을 가지고 있고,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량의 몇 십 배를 소모하는 인간의 삶을 돌아보라. 그 자원은 결국 자연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고, 그것은 다른 생명의 몫을 도둑질하고 강탈하는 것이다. 주변의 모든 조식을 깨뜨려 결국 모체까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암세포와 같은 삶, 그러한 인간들의 삶에 종착역은 어디일까? 이효리 씨의 인터뷰 기사에는 그러한 삶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이 있었다. 누구를 위해서도, 어떤 이의를 위한 계산도 아니었다. “나는 어떠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가”라는 물음이 바닥에 깔려 있었고, 그것에 대한 답으로써 행동과 결단이 나왔다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 겉으로 드러난 이효리 씨의 뒤를 따르기 보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모색으로 삶의 모습을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아무튼 모처럼 이렇게 남을 찬탄하는 행복한 시간,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기회를 제공한 이효리 씨에게 다시 한번 찬탄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장하다, 이효리! 멋있다, 이효리! 힘내라, 이효리!”

社說

불교정책 공약 실천이 필요하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불교 정책 공약을 내놨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불교 정책 공약은 화해협력과 상생을 위한 협력성있는 정책 추진 등 9가지로 전통사찰 정비와 문화재 보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조계종이 각 대선캠프에 전달했던 요구 정책안을 대폭 수용한 것이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위한 남북불교 교류협력 사업 시행, 전통문화유산과 자연 유산의 보존·관리 종합 정책 수립 총 5가지 주제로 된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당의 공약은 불교의 공익적 사회 활동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공약이 대동소이하다.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관리 전담기구 신설을 비롯한 다종교 다문화 시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제정, 전통사찰 농지 취득 허용, 보전부담금 감면, 조계사 인근 전통문

화관광지구 지정, 10.27법난 특별법 개정 등은 거의 같은 내용이다. 사실이 같은 공약들은 이미 불교계에서 요구했고, 정치권에서 늘 들어주겠다고 했던 재담, 삼탕의 약속들이다. 불교 유?무형 문화유산은 국책사업과 개발로 인해 훼손당하며, 고립되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근원적인 불교 및 역사문화유적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대안이 부재하다. 창의적이고 신선한 정책이 없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공약의 이행이다. 사실 역대 정권 중 제대로 불교 공약을 이행한 경우는 많지 않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듯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이행되지 않는다면 슬로가 없다.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 실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은 공약 이행에 신경을 써야 한다.

나눔,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

완연한 겨울이다. 살을 에는 추위에 저절로 옷깃을 여미게 된다. 이 추위가 더욱 어렵게 다가오는 이들은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들이다. 이들을 돕기 위한 각계 행사들도 자주 찾아볼 수 있다.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도 12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자비나눔 후원의 밤 ‘아름다운 아름다운동행’을 개최했다. 2008년 아름다운동행 창립 이후 최초로 열린 후원의 밤 행사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관심을 끌었다. 이날 이사장 자승 스님은 “경제 불황으로 나,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힘든 시기다. 불자들이 먼저 나서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자비나눔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개최된 행사”라며 “이제 출범 4년째를 맞는 아름다운 동행은 무주상의 나눔을 생활화하며 십시일반 나누는 공동체를 실현해 사회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되고자 한다”고 취

지를 설명했다. 사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나눔과 배려가 미덕이었다. 유교 경우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자손에게도 경사가 있다”(積善之家 必有餘慶)고 말하며 이웃에 대한 선행을 장려했다. 한국정신문화의 큰 맥을 이루고 있는 불교는 보시(布施)의 가치를 소중히 여겼다. 특히 집착 없이 베푸는 보시를 의미하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는 이 시대 불자와 국민들이 다시 한번 곱씹어봐야 할 가르침이다. 이를 통해 가난한 이에게는 분수대로 나누어주고, 진리의 말로써 마음이 빈곤한 자에게 용기와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며, 모든 존재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참된 보시다. 연말연시에 맞춰 소외계층에 생생하게 보시보다는 평소에도 진정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올바른 불자의 자세일 것이다.

대선 후보 불교 공약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불교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 측은 전통 사찰 정비와 보존에, 문 후보 측은 불교의 사회적 활동 지원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한 불교계 인사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규제법령 폐지가 1순위 돼야



범승스님 불교사회정책연구소 공동대표

새누리당은 ‘화해협력과 상생을 위한 협력성있는 정책 추진’ 등 9개 사업, 민주당은 ‘실악산·금강산·비무장지대와 전통사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추진’ 등 5개 항의 불교계 공약을 제시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우리 고유의 문화의 핵심인 불교의 전통문화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공동적으로 밝혔다. 현 상황은 국가가 전통사찰 지원법 등으로 불교와 불교의 유무형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의 고등종교인 불교에 대한 자주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번 양당의 공약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폐악의 국가제도를 고칠 의지와 노력은 물론 기본적 인권 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불교의 유무형의 문화유산은 국책사

업과 개발(도시, 도로건설, 산지개발 등)로 인해 훼손당하며, 고립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근원적인 불교 및 역사문화유적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대안은 이번에도 부재하다. 양당 모두 불교가 헌법에서 보장된 종교자유를 국가제도 자체로 인해 훼손당하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는 양 후보 모두 ‘정부가 불교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각종 불교약법 폐기 또는 대대적인 개정 제1순위 공약으로 제시해야 했다. 새누리당의 ‘10. 27법난명예회복’이나 민주당의 ‘전통사찰의 지원이나 규제완화’ 등은 당 차원에서 직간접으로 누차 제기한 것으로 재담·삼탕의 공약일 뿐이다. 결국 선심성 공약으로 불교계를 무시하는 인상을 준다. 또한 양당 공약은 지엽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차기 정부는 동북아의 전통문화의 역사적 가치와 내용들을 잘 활용함에 따라 많은 국익을 가져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하며, 심층적이며 거시적인 불교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발전도 있으나 대체로 인식 부족



박광서종교자유정책연구원 상임대표, 서강대 교수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각 후보들의 공약 경쟁이 치열하다. 문제는 대부분의 공약들이 ‘공약(空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양 후보가 불교계에 내놓은 공약들은 구체성이 부족한 ‘불교 달래기’가 대부분이다. 사실 정부 부처 공직자 종교편향의 경우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국민은 잘 사는 것만을 바라지 않는다. 행복하고 안전하게 사는 삶을 요구한다. 불교 역시 마찬가지다. 양 후보에게 바라는 것은 선심성 공약이 아니라 발전으로 한국 전통문화화를 계승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줄 일이고 있다.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박 후보 측에서 수용한 ‘(가칭)중요범죄법’, ‘(가칭)차별방지법’ 제정은 진일보한 공약으로 평가하고 싶다. 다종교 다문화 사회에서 이 같은 법률은 선진국들의 사례를 전형적으로 검토해 도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문 후보도 다종교 다문화 사회의 정책을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다만 사찰을 중심으로 한 도농공동체 구성과 사찰·사하촌 재생에너지 사업추진, 탈원전으로의 전환 등은 매우 바람직하고 눈여겨 볼 공약들이다. 자칭 녹색성장장부를 지향하면서 원자력을 수출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은 위험천만하고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발상이기 때문이다. 이제 국민은 잘 사는 것만을 바라지 않는다. 행복하고 안전하게 사는 삶을 요구한다. 불교 역시 마찬가지다. 양 후보에게 바라는 것은 선심성 공약이 아니라 발전으로 한국 전통문화화를 계승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줄 일이고 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해원 편집인: 박해월 인쇄인: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인사총괄팀: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연발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팀: www.hyunbulshop.com. 대구지사: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전북지사: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영주지사: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경전사경, 한지백팔사경 5종, 사경지. 1호 반야심경(한문) 2호 금강경(한문) 3호 반야심경(한글) 4호 금강경(한글). 1호 반야심경(한문) 2호 금강경(한문) 3호 반야심경(한글) 4호 금강경(한글). 11호~17호 법화경(한문) 1~7 19호~25호 법화경(한글) 1~7. 신묘장구대라리 / 춤부다라니. 26호 신묘장구대라리(한글) 27호 반야심경(한문) 29호 춤부다라니(한글) 30호 반야심경(한글) 28호 대불정능엄신주(한글). 반야심경 탐사경. 한지백팔사경 5종. 사경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동진기획·붓다쇼핑. www.buddhashopping.com. TEL. (051) 515-2988, 555-1087, 508-9377~8 FAX. (051) 508-0101.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루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 121068-56-042256 ◆우체국: 612416-02-031008 [예금주: 강태규]